
평화기의 중앙아메리카 좌파:

다양하고 유기적인 변화

살바도르 마르티 이 푸이그

살라망카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바르셀로나국제문제연구소(CIOB) 연구원이다.
주로 시민사회운동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핵심어: 좌파, 게릴라, 사회운동, 정당, 중앙아메리카, 중미, FSLN, FMLN

1. 위기(1990~2000) 이후의 중앙아메리카: 새로운 무대への 적응

1) 평화로 가는 과정과 정당인으로 변신한 게릴라들

중앙아메리카의 위기가 발생한 초기부터 정부와 게릴라 간 협상을 통해 폭력 행위를 종식시키려는 다양한 제안이 등장했으며, 그러한 제안은 국가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내외를 망라하여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¹⁾ 당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만연하고 있었고,

1) 1981년 엘살바도르에 대한 프랑스와 멕시코의 공동선언이나 콘타도라 그룹(Grupo de Contadora)의 제안에서 시작해 제2차 에스키푸라스(Esquipulas) 협의안에 이르기까지,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1987년 제2차 중미정상회담에서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중미의 5개국 정상은 1987년 8월 6일에서 7일까지 양일간 과테말라의 에스키푸라스(Esquipulas)에서 마주 앉았다. 회담의 의제는 중미 지역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만드는 것이었다.²⁾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미의 물질적·사회적 조건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내전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호공존을 모색하는 타협안을 도출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릴라 세력에는 오직 한 가지 출구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변신을 꾀하는 것이었고, 이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당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이하 산디니스타당으로 표기한다)가 집권하던 니카라과와 아직도 무장투쟁 중이던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 게릴라의 변신 역학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산디니스타당은 집권세력으로서 선거를 조직하고 준비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이하 파라분도마르티당으로 표기한다.)과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RNG)은 불법단체에서 합법적인 정치세력으로 변신하는 것과 동시에 선거에 참여해야만 했다. 두 단체는 각각 1994년과 1996년부터 선거에 참여했다.

1990년 니카라과 선거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산디니스타당이 패배하고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Violeta Barrios de Chamorro)가 승리했기에 니카라과 및 주변지역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모했다. 미국의 침략은 종식되었고 콘트라 반

2) 합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조인국 정부는 정치범을 석방하고, 포위망을 해제하며,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복원시킨다. 또한 정부는 반정부 무장세력과 협상을 진행하고, 그 외의 모든 반대세력에도 대화하며, 총선거를 실시한다.

군은 해체되었다. 온두라스의 무장세력 또한 해체되었고, 나머지 중미 지역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박을 크게 받았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시기에 게릴라 세력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당시 해체되고 있던 구소비에트 모델에 기초했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이와 동시에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당이 중상주의적 정치시스템에 적응하면서도 기층 민중의 요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었다(Martí i Puig y Figueroa Ibarra 2006).

이러한 상황에서 게릴라 집단이 정당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구(舊) 게릴라 지도부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존중하면서 역동적인 경쟁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다. 이는 결국 다른 정당이나 세력, 특히 미국정부까지 포함한 외부세력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타협하는 역동성을 보여줘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는 약화시켜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세 국가의 게릴라 집단 내부에서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대부분의 대립은 집행부와 당원의 충돌을 거쳐 분열과 추방으로 마무리되었다.³⁾

새로운 정당시스템을 긴급하게 수용해야만 했던 과테말라의 민족혁명연합과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당,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당은 적응방식이 달랐다. 비록 뒤앙스와 입장이 조금은 변했을지라도 세 정당 모두 좌파 이데올로기를

3) 특히 니카라과 산디니스타당의 내부투쟁과 엘살바도르의 민중혁명군(Ejé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 ERP)의 변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산디니스타당은 내부의 격렬한 토론 끝에 세르히오 라미레스(Sergio Ramírez)와 에르네스토 카르테날(Ernesto Cardenal)이 탈당하게 된다. 한편 비야로보스(Villalobos) 사령관이 이끌던 민중혁명군은 민중개혁당(Expresión Renovadora del Pueblo)으로 개칭한 후, 1995년 중도정당인 민주당을 결성하게 된다(Martí Puig 1997, 2006; Torres-Rivas 1998).

유지하려는 분파가 존재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역동성은 매우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내부의 거대한 갈등을 반대파에 대한 추방이나 본질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정치투쟁으로 종결 시키는 모습은 세 정당 모두 똑같았다. 결국 세 국가의 좌파는 무능력한 내부투쟁으로 인해, 일부 지방선거의 커다란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세 정당의 모습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과테말라의 민족혁명연합이 점진적으로 붕괴된 반면,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당은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고,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당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산디니스타당과 파라분도마르티당은 야당으로서 전략도 달랐다.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당이 우파의 민족공화연합(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 ARENA) 및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PCD)과 항상 강경하게 맞섰던 반면에, 산디니스타당은 정부 여당과 협상에 주력했다. 산디니스타당은 제도권 내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차모로 정부 및 자유당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협상에 몰두했다.⁴⁾

과테말라의 민족혁명연합의 케이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복잡하고 드라마틱하다. 1982년 네 개의 게릴라 집단이 연대해 출범시켰던 민족혁명연합은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전에 이미 선거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민족혁명연합 지도부는 내전 기간 내내 다양한 논쟁 속에 항상 분열된 상태였고, 이는 선거에서도 무차별적인 후보난립으로 이어졌다(Figueroa Ibarra 2006). 선거관 진입 초기부터 시작된 민족혁명연합의 와해 과정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 확대되

4) 산디니스타당의 이러한 행위는 80년대의 업적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산디니스타당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수호해야 할 이익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놓았기 때문이다.

었다.⁵⁾ 1995년 선거에서 민족혁명연합의 일부는 신과테말라 민주전선(FDNG)이라는 연대세력을 구성해 선거에 참여하였고 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선거 후에도 좌파는 계속 분열되었다. 롤란도 모란(Rolando Morán)과 가스파르 일론(Gaspar Ilón)이라는 두 게릴라 사령관이 사망하고 파블로 몬산토(Pablo Monsanto)가 당을 떠나게 되자, 민족혁명연합에는 카를로스 곤살레스(Carlos Gonzáles)만이 남게 되었다. 2003년과 2009년 선거에서 좌파는 또다시 분열돼서 출마했고, 득표율은 갈수록 줄어들었다.⁶⁾

2)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 왜소한 좌파

1980년대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코스타리카의 좌파정당은 90년대 선거를 치르면서 극도로 위축되었다. 코스타리카 좌파는 1986년 선거에서 5.2%의 득표율로 최고성적을 거뒀지만, 이후 1990년 선거에서는 3.9%, 1994년 선거에서는 1.4%로 점점 추락했으며, 마침내 1998년 선거에서는 1.1%라는 참혹한 득표율로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극도로 분열된 좌파세력은 이 네 번의 선거에서 다양한 연대를 구성해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1986년 선거에는 두 개의 연합세력, 즉 민중연합(Pueblo Unido)과 민중동맹(Alianza Popular)

5) 선거기간 초기에 구게릴라 세력 중 일부 세력이 신과테말라 민주전선(Frente Democrático Nueva Guatemala: FDNG)이라는 연대세력을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바로 게릴라단체 혁명의 10월(Octubre Revolucionario)과 1월 6일 과테말라노동당(PGT-6 de enero) 출신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혁명연합 내 다른 게릴라단체 출신의 지도부와 활동가가 신과테말라 민주전선에 동참, 주도권을 장악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는 호르헤 곤살레스 델 바예(Jorge González del Valle)가 출마해 6.8%의 유효투표를 획득했다.

6) 1999년 선거에는 신국가동맹(Alianza Nueva Nación: ANN)과 신과테말라 민주전선이 따로 출마해, 각각 11.3%와 1.2%의 유효투표를 획득했다. 2003년 선거에는 민족혁명연합이 신국가동맹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출마했으며, 득표결과는 민족혁명연합 2.5%, 신국가동맹 5.3%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 각자 출마했다. 하지만 1990년 선거에는 민중동맹이 노동자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 PRT)과 진보당(Partido de Progreso)으로 분열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출마한 민중연합과 함께 총 세 개의 좌파정당이 한꺼번에 선거에 참여했다. 1994년 선거에는 대부분의 좌파운동세력을 다시 결집시킨 민중전위당(Partido Vanguardia Popular: PVP)으로서 선거에 참여했고, 마지막 1998년 선거에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지난 1986년 연대세력과 동일한 이름의 민중연합당(Partido Pueblo Unido: PPU)을 창당, 선거에 참여했지만 추락을 면할 수는 없었다(Rovira 2001, 207). 하지만 좌파정당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는 코스타리카 좌파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다음 세대에 활약할 좌파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온두라스에도 냉전종식과 중미평화협정의 결과물이 도래했다. 미국 정부는 군부에 대한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온두라스에 형식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광범위한 제휴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은 카를로스 로베르토 레이나(Carlos Roberto Reina, 1994~1998)와 카를로스 플로레스 파쿠세(Carlos Flores Facusse, 1998~2002)의 자유당 정부를 자극했다. 자유당 정부는 군대의 역량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이렇듯 미국의 보호 속에 진행된 온두라스 민주화 과정에서 1997년 민주통일당(Unificación Democrática: UD)이 출범했다. 민주통일당은 온두라스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Hondureño: PRH)과 온두라스 모라산주의 해방당(Partido Morazanista de Liberación de Honduras: PMLH) 등 소수 좌파정당이 좌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설립한 정당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 공간에도 불구하고, 민주통일당과 기독교민주당(Partido Demócrata Cristiano de Honduras: PDCH) 및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혁신통일당(Partido Innovación y Unidad: PINU)은 1997년 선거

에 각자 출마해, 총 4.2%의 득표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10월말 온두라스를 충격에 빠뜨렸던 허리케인 미치(Mitch)의 비극은 온두라스 정치사에 새로운 역학구조를 가져왔다. 비록 제한적인 형태일망정 좌파 그룹과 시민사회가 재건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는 전대미문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2. 다양한 여정(2000~2010): 다양한 좌파

1) 집권에 성공한 좌파

①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당: 전술적 대립에서 오르테가주의의 승리까지

전술한 것처럼, 1990년 선거에서 패배한 산디니스타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새로운 환경이란 조직의 운명이 정부의 요직을 장악하는 능력에 종속되는 상황을 의미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직책은 선거를 통하거나 제도적 임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선거 패배 직후 산디니스타당이 맞게 된 시대적 요구는 조직의 축소와 함께 지도부의 성향변화를 의미했다. 혁명기 민중을 대리하거나 게릴라세력을 구성한 일원이 선출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산디니스타가 장악한 관료 권력이 줄고 당원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자 산디니스타당은 자연스럽게 전문 정당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또 다른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 그는 당의 중요한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직위에 상관없이 측근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산디니스타당을 사당화하였다.⁷⁾

7) 사당화(desinstitucionalizar)란 레비츠키(Levitsky)의 제도화(institucionalizar)라는 개념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평화롭게 종결되지 못한 채 수많은 내부 투쟁을 야기했다. 그중에서도 1991년에서 1994년까지 총회에서 진행된 투쟁이 가장 격렬했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충실한 당 운영과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한 비주류 세력이 최종적으로 패퇴하게 되었다. 결국 당의 총책임자 시절부터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차근차근 승리를 챙긴 다니엘 오르테가와 그의 파벌이 당의 모든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1996년과 2001년의 연이은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오르테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산디니스타당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Martí i Puig 2010).

이러한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산디니스타당은 제도권 정당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주 크게 변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민중봉기를 이끈 주요 세력과 1990년 선거에 참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현재까지 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2006년 재집권에 성공하고 2011년 재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르테가의 변신이 비록 성공적으로 평가받을지라도 말이다. 오늘날의 산디니스타당은 20년 전의 조직과는 매우 다르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조직은 미약하며, 정당구조 또한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조직으로 변했다.⁸⁾ 대규모 당원 집회를 통해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반대파를 추방할 정도로 변했다.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지도부 인물 중 하나였던 다니엘 오르테가뿐이다. 혁명 기간 활동하던 9명의 사령관 중 단 세 명만이 정당에 남아 있고 집단지도체제의 논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오르테가의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Rosario Murillo)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Levitsky 2001).

8) 산디니스타당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에콰도르의 코레아(Correa)가 만든 정당처럼 우상화된 정당으로 변화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다니엘 오르테가와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보면서 산디니스타당의 사유화와 세습화에 대한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그 과정은 1990년, 즉 오르테가가 산디니스타의 선거패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평화적 정권이 양이 산디니스타당의 소멸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통치할’ 정당으로 변신을 의미하며, 산디니스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오르테가는 민중의 이익과 혁명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전사의 상징이자, 산디니스타당의 대체불가능한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 결과 산디니스타당 내 다른 분파는 혁명의 대의와 민족해방전선의 유산을 부정하는 배신자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들은 자아비판을 통해 당의 이데올로기를 재점검하고 당과 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르테가는 산디노주의의 본질을 수호하는 지도자로 변신했다. 1990년부터 1995년 즉 당내 개혁파가 탈당할 때까지 오르테가는 하부조직을 총동원해서 당을 장악해 나갔다. 완벽하게 당을 장악한 뒤 치른 1996년 두 번째 선거에서도 패배하게 되자, 오르테가는 자신의 권력 지분을 보전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변신하게 된다. 반대진영의 다양한 고소와 고발을 무시한 채⁹⁾ 오르테가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킬 공공기관의 직위를 부당하게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아르놀도 알레만(Arnoldo Alemán)과의 협약이 탄생했다. 양자는 현 체제에서 산디니스타와 자유당의 헤게모니를 상호 인정하고, 각 정당 내부에서 양 지도자의 권력을 강화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2001년 세 번째 선거에서도 패배하게 되자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당의 선거

9) 다양한 소송 중에서 소일라 아메리카(Zoila América) 건이 가장 유명하다(Kampwirth 2009).

상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¹⁰⁾ 이런 상황에서 오르테가는 자유당의 알레만 및 당시 니카라과 대통령이던 엔리케 볼라뇨스(Enrique Bolaños)와 여러 가지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산디니스타당의 권력을 증대시키고 자유당 당원들의 내분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같은 기간 오르테가는 산디니스타당의 전통적인 적대세력과 관계개선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¹¹⁾, 국가적 화해와 평화 및 사랑을 호소하는 선거캠페인을 펼쳤다.¹²⁾ 다니엘 오르테가의 선거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2006년 11월 선거에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6년 산디니스타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당시 여당이 자유동맹당(Alianza Liberal Nicaragüense: ALN)과 자유헌정당(Partido Liberal Constitucionalista: PLC)이라는 두 개의 정당으로 분열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친 사유는 아마도 오르테가의 철저한 전략과 전술일 것이다. 그는 애초에 자신에게 불리했던 선거판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그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수단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킴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오르테가 개인에 의존한 대의논리(代議論理)와 우상화 리더십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오르테가의 리더십은 조직화된 시민사회나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완전하고 견실한 정당을 건설해서 강화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당을 사유화하고 가부장적으로 통제된 결과물이었다. 이전까지 적대적이었던 정치 환경에 산디니스타당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유는 완벽하게 당권을 장악했기 때

10) 산디니스타당은 1990년, 1996년, 2001년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으며, 득표율은 40.8%, 37.8%, 42.3%를 기록했다.

11) 교회나 일부 구콘트라 반군 지역과 관계개선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12) 2006년 니카라과 대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티 이 푸익의 2008년 논문을 참조할 것.

문이다. 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대표 이데올로기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자율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¹³⁾

산디니스타당은 오르테가가 당권을 장악한 순간부터 조직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산디니스타당이 당원의 열망과 유사해진 것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코레아와 관계를 맺으면서부터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新)산디노주의의 가장 큰 후원자요 동맹세력이라고 간주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Marti i Puig y Close 2009). 따라서 2007년부터 재집권에 성공한 산디니스타당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르테가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유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카라과 국민은 2007~2011년의 오르테가 제2차 정부와 2012년~현재의 제3차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했다.¹⁴⁾ 하지만 빈민층 사회정책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좌파 정책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조각과 관련해서도 오르테가는 항상 인지도가 낮은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해 보직을 순환시킬 뿐이며,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를 고위직에 임명하곤 하였다. 그리고 공공정책 부문에서는 상호 모순된 정책을 거리낌 없이 집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조금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반자본주의 수사학과 함께 우파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사회보조금 정책은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빈민층 사회정책의 실행이며, 다른 하나는 무상교육과 무

13) 2000년대 산디니스타당의 이데올로기 전환은 우파 산디니즘의 가능성을 점칠 정도로 급격한 것이었다 (Torres-Rivas 2011).

14) 다니엘 오르테가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1차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두 번째 집권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상의료 등 무상서비스 정책이다. 전자는 기아 제로, 고리대금 제로, 실업 제로, 민중을 위한 거리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건소 및 병원진료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금의 적절한 지원 없이 실행된 무상서비스 정책은 노동자의 실망과 분노만 촉발시켰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무역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비록 수사적인 표현은 달라졌지만 오르테가 정부 역시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IMF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②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당: 정통성 유지와 집권을 향한 길

차풀테펙(Chapultepec) 평화협정의 체결로 엘살바도르의 내전은 종식되고 파라분도마르티 민족전선은 합법적인 정당으로 변신했다.¹⁵⁾ 창당 당시부터 다양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던 파라분도마르티당은 정당으로 변신하자마자 빠르게 두 파로 분열되었다. 민중혁명군과 국민저항(Resistencia Nacional: RN) 출신의 개혁파와 엘살바도르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El Salvador: PCS), 중앙아메리카 노동자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 los Trabajadores Centroamericanos: PRTC), 해방민중세력 출신의 정통파로 나뉜 채, 조직과 담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내분 속에 1994년 3월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자(대선 31.6%, 국회의원선거 25% 득표), 개혁파의 주요 지도자들이 당을 떠나게 되었다. 파라분도마르티당은 1994년 12월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해 내부의 분열을 해소하

15) 파라분도마르티당은 1992년 5개의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그룹이 모여 만든 정당으로, 정관에 따르면 5개의 그룹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지녔다. 5개의 그룹은 파라분도마르티당의 지도부 및 주요 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했으며, 당헌 개정과 지도부 교체 및 물질적·재정적 수단 사용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합의하였다.

고 조직의 통일을 모색한 결과, 당내에는 '의견동향' 그룹만이 남게 되었다. 하지만 통일된 지도부와 1997년 선거의 다소 호전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분은 그치지 않았으며, 결국 1999년 대선후보경선으로 인해 지도부급 인사와 당원들이 다시 탈당하게 되었다.

1999년 선거에서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된 파라분도마르티당은 2000년 12월 전 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헌을 제정했는데, 이에 의하면 내부파벌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민주혁명과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당의 노선 또한 확고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른 2000년 선거에서 파라분도마르티당은 창당 후 처음으로 우파인 민족공화연합(ARENA)을 누르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당의 지위를 확보했으며, 지방정부 선거에서도 79개 시의 시장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파라분도마르티당의 내분은 끝나지 않았다. 2004년 내부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이러한 내분은 결국 이전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혁명을 내세우는 주류 정통파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추방하는 것이었다.

탈도 많았던 2004년 대통령 후보경선에서는 결국 엘살바도르 공산당의 오래된 리더 샤희 안달(Shafick Handal)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공화연합에 22%라는 커다란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안달의 대선후보 선출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컸는데, 이는 정통파가 파라분도마르티당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2005년 개혁파 지도부가 다시 탈당하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파라분도마르티당은 이렇게 다양한 분열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혁명 그룹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된 것이다(Martin Alvarez 2006).

하지만 이후 파라분도마르티당의 변화는 매우 놀라웠다. 견고한 이데올로기적 통일성과 안달이라는 강력한 리더십까지 갖추게 되자, 2005년부터 파라분도마르티당은 외부세력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

인 케이스가 바로 저널리스트인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를 대통령 후보로서 지원하던 ‘마우리시오의 친구들’과의 연대였다.¹⁶⁾ 2006년 안달이 사망하자, 당을 장악하고 있던 주류정통파는 2009년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소수그룹인 푸네스와 연합하게 된다. 결국 푸네스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한 파라분도마르티당은 2009년 선거에서 51.3%의 득표율로 48.7%의 민족공화연합을 누르고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집권 후 푸네스 정부는 실용주의 온건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산체스 부통령의 주류정통파와 갈등에 빠지게 된다(Allison y Martín Alvarez 2012). 푸네스 대통령과 파라분도마르티당의 복잡한 갈등관계는 특히 세 가지 점에서 두드러졌다. 첫째는 대통령과 우파인 국민통합동맹(Gran Alianza por la Unidad Nacional: GANA)의 연대로, 이 단체는 민족공화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정당이었다. 대통령은 파라분도마르티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국민통합동맹과 연대했다. 둘째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좌파가 차베스보다는 룰라의 노동자당(PT)과 훨씬 더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주볼리바르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에 대한 통합을 거부한 것이었다. 마지막 셋째는 전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푸네스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정치사회적 갈등,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범죄를 대하는 수사적 표현의 변화였다. 마약범죄조직인 마라스(Maras)와는 협상의지를 보이면서도, 빈곤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⁷⁾

16) 푸네스의 친구인 프란시 아토 아스분(Franzi Hato Hasbún)이 두 그룹의 협상을 중재했다. 아토 아스분은 메스컴의 사장이자 게릴라단체 해방민중세력(Fuerzas Populares de Liberación "Farabundo Martí": FPL) 출신이었기에 파라분도마르티당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17) 엑토르 페를라(Héctor Perla)와 엑토르 크루스(Héctor Cruz)의 2013년 텍스트에 의하면, 오르테가와 푸

푸네스를 영입한 순간부터 파라분도마르티당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결국 파라분도마르티당은 2012년 선거에서 수도인 산살바도르 시장 직(職)을 상실하고 국회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2014년 대통령선거가 훨씬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아직도 야당인 좌파

① 코스타리카: 강력한 시위 경험과 전통 정당의 내부 붕괴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험한¹⁸⁾ 코스타리카의 진보진영은 21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를 펼치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졌던 두 번의 시위는 코스타리카전력공사(Combo del ICE)의 민영화와 FTA에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전력공사 민영화에 대한 투쟁은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Miguel Angel Rodríguez) 정부가 추진한 통신시장개방 법률안에 대한 반대시위였다. 정부가 2000년 동 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중들은 국가를 마비시킬 정도로 광범위한 시위를 전개했다. 결국 민중들의 장기간 투쟁에 굴복한, 기독교사회통합당(Partido Unidad Social Cristiana: PUSC)의 로드리게스 정부는 법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가장 큰 성과는 시위에 참여한 조직의 지지세력 확장이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수개월에 걸친 시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조직 중의 하나였던, 호세 메리노(José Merino)의 민중의 힘(Fuerza Democrática)은 일부 유력한 지역의 유권자들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네스 정부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일반 민중들에 대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길 바라는 민중들의 집단적인 염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8)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인상은 계속되었다.

FTA 비준에 반대하는 투쟁은 또 다른 중요한 경험이었다. 2004년 시작된 FTA 반대시위는 시민들의 국민투표발의 요구를 수용한 최고선거재판소(Tribunal Supremo de Elecciones)의 판결이 나온 2007년 4월 12일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오스카르 아리아스(Oscar Arias) 대통령은 이튿날인 4월 13일 의회에 발의안을 보내 국민투표를 실시한 끝에, 동년 10월 7일 비준안 발효에 성공하였다.

국민투표의 공식적인 청원에서부터 결집된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세력이 FTA 반대 캠페인을 펼치자¹⁹⁾, 특권층과 부유층들은 지지 캠페인으로 맞불을 놓았다.

반대세력은 캠페인에서 노조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세력이 FTA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우고 차베스·다니엘 오르테가스·피델 카스트로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나섰음도 강조하였다. 그런데 캠페인 전개과정에서 새로운 통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주목할 만하다(Cortés 2008; Raventós 2008). 최종적인 국민투표결과는 FTA 지지 세력의 승리였고, 그 차이는 3.4%로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국민투표를 발의했던 반대세력에는 아주 참혹한 결과였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의 21세기 초엽이 민중시위의 시기로만 기록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통정당의 내부붕괴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중도 좌파정당인 시민운동당(Partido de Acción Ciudadana: PAC)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당은 2002년 2월 총선에 참여해서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민해방당(Fuera Liberación Nacional: PLN)이 점유했던 중도좌파

19) FTA 반대를 외쳤던 시민사회세력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경험은 애국위원회(Comités Patrióticos: CP)의 활동이었다. 애국위원회는 국민투표발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정치세력과 정당 간 전통적인 연결고리를 개혁하러 시도한 조직이었다. 특히 애국위원회가 태동한 지역은 당시까지 주로 국민해방당(PLN)이 우세를 보이던 지역이었다.

의 지지를 결집시킨 결과였다. 사실 시민운동당의 출범은 국민해방당과 기독교 사회통합당이라는 양대 정당의 권위실추 때문이었다. 양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부패스캔들을 일으켰고,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 것이다.

② 온두라스: 멜 켈라야 사례

허리케인 미치의 재건과정에서 온두라스의 정치공간은 크게 확장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활용해 정치적 기반을 창출·확장해야 했던 좌파의 역량은 너무도 미약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던 대부분의 좌파세력들은 허리케인 이후에도 십여 년간이나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에만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좌파는 2004년부터 아주 실망스러운 인물인 멜(Mel)을 지원하게 되었다. 멜은 바로 자유당(Partido Liberal: PL) 출신의 온두라스 대통령이었던 호세 마누엘 켈라야(José Manuel Zelaya)를 일컫는 말이다.²⁰⁾

켈라야는 2005년 11월 27일의 대선에 유서 깊은 정당인 자유당의 후보로서 출마했다. 전체 유권자의 50.3%만이 참여한 동 선거에서 그는 49.9%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힘겹게 권좌에 올랐다.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비공식적이고 사사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집권기간 동안 온두라스를 ALBA에 가입시켰으며, 이를 통해 빈민층 사회정책 및 재정정책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자신을 대

20)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멜 켈라야의 전력은 특이하다. 그는 원래 올란초(Olancho) 주에서 목재업에 종사하던 기업인으로, 1970년 자유당에 입당 1985년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레이나(Reina) 정부(1994-1999)에서 온두라스 사회투자기금(FHIS)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다. 사회투자기금의 빈곤감소 프로젝트와 지방분권화사업은 켈라야를 자유당 대선후보경선(2001)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다.

통령후보로 선출한 자유당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셀라야는 자유당의 기존 정치인들 대신 새로운 정치세력 즉 노동 운동권과의 연대를 통해 좌파정책들을 추진한 것이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적인 기사노동조합·최저임금인상·쿠바약품수입·베네수엘라원유 및 가스수입과 같은 정책 역시 추진했다.

이러한 셀라야의 독주에 분노한 온두라스의 기존 정치인들은 2009년 6월 28일 군대를 동원해 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들은 온두라스에 붙고 있는 차베스주의의 영향과 1982년 헌법의 개정의지 및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을 ‘참을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²¹⁾

쿠데타가 발생하자 수많은 민중들이 국가의 주요 도로와 정부건물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전국시민과업(Paro Cívico Nacional)이라고 부르던 시위는 몇 주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대규모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끝에 해산되었다. 항의 시위는 전국민중저항위원회(Coordinadora Nacional de Resistencia Popular: CNRP)가 주도했는데, 이 위원회에는 노동자·서민 등 온두라스 내 대다수 민중운동세력이 총결집되었다. 뭉을 지지하는 민중시위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통일된 단체구성으로 향했고, 그중에서도 쿠데타반대국민전선(Frente Nacional Contra el Golpe de Estado)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국민전선은 2010년 민중저항국민전선(Frente Nacional de Resistencia Popular: FNRP)으로 개편된 뒤, 2011년부터 정치적 좌파정당인 자유재건당(Partido Libertad y Refundación: LIBRE)으로 변신을 꾀하게 된다. 자유재건당은 전통적인 양당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목표로 차기 선거를 준비한다.

21) 대통령과 의회 및 최고재판소는 셀라야 집권 기간 내내 긴장관계를 형성했고, 이러한 긴장관계는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해 코스타리카로 추방하면서 종식되었다. 국제사회는 대통령 체포행위를 만장일치로 비판했으며, 수많은 민중들은 거리로 나와 이에 항의했다.

③ 과테말라: 미약하게 잔존하고 있는 좌파

과테말라의 민중운동은 90년대 사실상 사라졌다. 과테말라의 정치적 좌파는 1994~96년 단 2년 동안 시민사회회의(Asamblea de la Sociedad Civil)에 참여하는 삽화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다. 과테말라의 좌파는 정권과 대결할 역량을 단 한 번도 갖추본 적이 없어서 봉기가 발생했던 다른 두 국가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하지만 현재의 과테말라는 변하고 있다. 초기의 민중운동이 수도를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1세기에 치른 선거에서 아직까지는 미약한 결과를 거두고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원주민공동체위원회(Junta de Comunidades Indígenas)의 출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토토니카판(Totonicapán) 주(州)의 48개 지방에서 공동체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20세기말 10년 동안 정부의 광산·석유·수력발전 기업에 대한 개발권부여반대투쟁과 수자원민영화반대투쟁을 이끌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원주민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Ordoñez Mazariegos 2012).

향후 지하자원개발 반대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민중그룹과 원주민그룹이 주도권을 놓고 새로운 갈등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투쟁을 치르며 새롭게 재건된 좌파가 선거를 통한 투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베르헤르(Berger)에서 콜롬(Colom), 페레스 몰리나(Pérez Molina)로 이어지는 마지막 세 정부 내내 좌파는 선거역량강화에 매달렸다. 하지만 좌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갈등은 심화되었고, 반대세력의 추방·지도자 암살·협박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과테말라 좌파는 수동적으로만 저항할 뿐이었다. 결국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의 경우와는 달리 수동적인 저항에만 매달렸던 과테말라의 좌파는 단 하나의 제도권 권력이나 국회의석도 획득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선거에서 좌파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감소했던 이유는 다양했다. 하지만 과테말라 좌파는 선거패배에 대한 원인분석에서도 지도부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단일정당건설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부 좌파지도부는 전임지도부에 의해 선출되었고 조직 내 세대교체 또한 전혀 없었다. 결국 좌파조직과 청년층 사이의 거리감과 불신감은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다.

물론 전술했던 것처럼 과테말라의 좌파 지도부는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와는 다르다. 그들은 권력대체프로그램을 내놓기에 충분한 공적경험과 정당성을 획득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좌파활동가의 신변 또한 대단히 미약하다. 활동가의 시위에 대한 사면에서 형사처분까지의 모든 사법권을 아직까지도 과테말라 당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좌파들

1) 중미의 좌파: 서로 다른 여정들

최근 20년 동안 중미의 좌파는 매우 다양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물론 유사한 사항도 몇 가지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으로 다양한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국가별로도 다양했으며 개별 국가 내부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변모했다. 과테말라·엘살바도르·니카라과처럼 게릴라조직에서 합법적인 정당으로 변화했던 좌파와 온두라스·코스타리카의 좌파가 걸었던 길은 분명 달랐다. 처음 세 국가의 경우에도, 무기를 버리고 정당을 형성했던 과정은 유사했을지라도 변신 이후 걸어야만 했던 길은 매우 달랐다. 물론 모든 국가의 좌파가 공통적으로 내부불화와 반대파숙청·조직분열을 겪었지만 말이다.

니카라과의 경우에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변신이 시작되었다. 1990년 선거에선 패배했지만 산디니스타당은 여전히 수많은 물질적·상징적·제도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단들은 이후의 지방선거와 대선에 매우 유용했으며, 2007년부터 오늘날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90년대 초엽부터 니카라과 내 모든 좌파가 다니엘 오르테가와 로사리오 무리요가 장악한 산디니스타당에 속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사피크 사령관으로 대표되던 정통파의 퇴조와 함께 개혁파 축출을 통해 파라분도마르티당을 강화시켜 나갔던 방법이 관찰됐다. 하지만 개혁파 축출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았다. 비록 느리긴 했지만 오히려 지지층을 성장시켜 지방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십년 이상 다수의 개혁파들을 추방했던 파라분도마르티당은 2009년 대선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당은 집권 후 정부기관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에서는 게릴라 출신의 좌파가 선거판에 뛰어들자마자 분열되어 소멸되었다. 내분으로 선거에서 실패한 좌파는 아직도 극우파들의 폭력이 잔존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힘들게 투쟁하고 있다.

같은 시기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처럼 무장투쟁경험이 없던 국가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예로부터 시위가 거의 없었으며 단지 사민당 성격의 중도좌파 국민해방당(PLN)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21세기 초엽까지 개혁적인 좌파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5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책과 전통정당 내부의 분열로 좌파정당인 시민혁명당(PAC)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복지정책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시민사회영역에서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및 FTA협정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온두라스에서는 좌파정당 및 시민사회조직이 아주 미약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멜 셀라야가 독자적인 정치·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좌파가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셀라야의 시도는 군부쿠데타와 새로운 억압이라는 비극으로 종결되었다. 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치의 미지수는 셀라야의 복귀 및 선거참여가 과연 진정한 좌파의 출현을 의미하게 될지 아닐지 여부다.

이렇듯 다양한 여정들은 지난 25년 동안 좌파가 처한 상황과 함께 좌파정당의 고유한 성격까지도 변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른 한계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미의 모든 국가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좌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코스타리카는 예외지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했다. 다른 정치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만이 아니라 평화적 경쟁과 정치적 연대를 통해 공존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²⁾

이렇듯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좌파는 권력의 책임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 역시 대내외의 복잡한 환경과 자본주의경제 틀이라는 딜레마에 맞춰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좌파조직의 성격 또한 크게 변했다. 과거에는 정치군사적 성격에 맞춰 계급적 복종과 통일된 논리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 비록 산디니스타당과 과라분도마르티당 같은 정당이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전통의 정치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고, 지도부와 친밀한 당원들만의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개혁과들을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 중미 좌파의 실상은 이전

22) 쿠데타 이후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의 사회비판운동가들은 여전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세대와 분명히 다르다.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혼종적이다.²³⁾ 오늘날 각국의 좌파가 정당 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사회운동 조직·초국가단체·자율노조에도 존재한다. 그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을 내세우며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

중미의 좌파는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로 변화를 모색해야만 했다. 오늘날 개별 국가 단독으로 대안적이고 개혁적인 의제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무역의 세계화와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60년대에서 80년대 추진하던 국가프로젝트 또한 거의 소용이 없다. 개발 및 개발을 추동할 주체에 대한 개념 역시 의문에 빠졌다. 오늘날 좌파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광산·가스·수자원·생물종다양성 등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²⁴⁾ 하지만 좌파시민사회와 좌파정당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책추진만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집권했을 때와 아닐 때에 따라 달라지는 좌파정당들의 기준변경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중의 기본권이 퇴보할 위험이 증대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각국의 민주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민들을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펴곤 했다. 우리는 정부가 조직 범죄와 마피아에 대한 전쟁을 빌미로 일종의 처벌적 포퓰리즘(populismo punitivo)

23) 중미 사회운동의 다양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Martí i Puig(2013)를 참조하길 바란다.

24) 중미지역에서 수많은 초국적 자본은 아웃소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회계책임·환경파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을 수행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정부는 일반 시민에게 의혹의 낙인을 찍어 의견의 차이와 자유를 제한했었다. 그런데 이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과거의 체제를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중미의 좌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의 증가로 법률적인 불평등과 취약성이 증대된 결과이다. 또한 마약거래와 인신매매로 이윤을 획득하는 마피아조직들의 권력이 증대된 반면 국가의 권력은 아주 미약해졌기 때문이다.

중미 좌파의 전통적인 연대망과 기반이 쇠약해진 것이 커다란 손실임은 분명하다.²⁵⁾ 그러므로 좌파의 미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재건하는 역량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연대논리를 개발하고 성·정체성·환경·성적취향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상호보완적인 성격의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역량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좌파는 지속가능성·보안·식량주권과 같은 문제들에 실용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될 새로운 투쟁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_ 김용호 옮김

원제와 출처

Salvador Martí i Puig.

"La izquierda centroamericana en "tiempos de paz": Mutaciones orgánicas e itinerarios dispersos."
OSAL(Observatorio Social de América Latina). Año XIV No 34. noviembre de 2013. pp.143-160.

25) 그중에서도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크다. 이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교회가 점점 권위를 상실한 결과며, 마킬라도라 지역의 노조금지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쇠퇴한 결과다.

참고문헌

- Allison, Michael y Martín Alvarez, Alberto. 2012. "Unity and Disunity in the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53(4): 89-118.
- Cortes, Alberto. 2008. "Los límites del referendo sobre el TLC como instrumento de participación política en Costa Rica."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121(3): 31~47.
- Figueroa Ibarra, Carlos. 2006. "La izquierda revolucionaria en Guatemala: Revolución para la democracia, democracia para la revolución." *La transformación de la izquierda en Centroamérica*. De la lucha armada a la participación electoral. Madrid: Libros de la Catarata.
- Kampwirth, Karen. 2009. "Feminismos, anti-feminismo y la lucha del aborto terapeutico. La memoria y las consecuencias inesperadas de la revolución." *Nicaragua y el FSLN (1979-2009)*. *¿Que queda de la revolución?* Barcelona: Edicions Bellaterra.
- Levitsky, Steve. 2001. "Transforming Labor-based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Argentine Justicialista Par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Working Paper* 288.
- Martí i Puig, Salvador. 1997. *Nicaragua 1979-1990. La revolución enredada*. Madrid: Libros de la Catarata. Segunda edición (2013) de libre acceso en Creative Commons: <http://www.academia.edu>
- Martí i Puig, Salvador. 2006. "Nacimiento y mutación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en Centroamérica." *La transformación de la izquierda en Centroamérica. De la lucha armada a la participación electoral*. Madrid: Libros de la Catarata.
- Martí i Puig, Salvador. 2008. "El regreso del FSLN al poder: ¿Es posible hablar de realineamiento electoral en Nicaragua?" *Revista Política y Gobierno* 25: 75~112.
- Martí i Puig, Salvador. 2010. "The Adaptation of the FSLN: Daniel Ortega's Leadership in Nicaragua."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52(4): 79~106.
- Martí i Puig, Salvador & Figueroa Ibarra, Carlos. 2006. La transformación de La izquierda centroamericana en "tiempos de paz": Mutaciones orgánicas e itinerarios dispersos. *La izquierda en Centroamérica. De la lucha armada a la participación electoral*. Madrid: Libros de la Catarata.
- Martí i Puig, Salvador y Close, David. 2009. *Nicaragua y el FSLN (1979-2009)*. *¿Que queda de la revolución?* Barcelona: Bellaterra.
- Martí i Puig, Salvador. 2013. "Social Movements in Central America: Paradoxes of Protest in a Post-War and Post-Revolutionary Society." *Mobilizing ideas*. 5 de agosto.

- Martín Álvarez, Alberto. 2006. “FMLN: De movimiento de Liberación Nacional a partido político.” *La transformación de la izquierda en Centroamérica. De la lucha armada a la participación electoral*. Madrid: Libros de la Catarata.
- Ordóñez Mazariegos, Carlos S. 2012. “Conflictividad agraria en los altos de Guatemala. Un caso de estudio.” *Publicacion Electronica* 6: 125~141. <http://biblio.juridicas.unam.mx/libros>
- Panniza, Francisco. 2009. “Nuevas izquierdas y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CIDOB d’Afers Internacionals* 85-86: 75~88.
- Perla, Héctor y Cruz, Héctor. 2013. “The Twenty-first-Century Left in El Salvador and Nicaragu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0(3): 83~106.
- Raventós, Ciska. 2008. “Balance del referendo sobre el TLC en Costa Rica a la luz de la teoría de la democracia.”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121: 13~29.
- Rovira, Jorge. 2001. “¿Se debilita el bipartidismo?” *La democracia en Costa Rica ante el siglo XXI*. San Jose: Universidad de Costa Rica.
- Torres-Rivas, Edelberto. 1998. “Los déficits democráticos en la posguerra.” *América Central. Las democracias inciertas*. Madrid: Tecnos.
- Torres-Rivas, Edelberto. 2011. *Revoluciones sin cambios revolucionarios. Ensayos sobre la crisis en Centroamérica. Guatemala*. F&G Editores.